

The Usage of "Neighbor" (περίοικος, πλησίον, γείτων) in the New Testament and the Teaching of Neighborly Love Expanded to an Ecological Perspective

Hanseok Se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plores the concept of “neighbor” in the Greek New Testament by examining the usage of περίοικος, πλησίον, and γείτων, and considers how the teachings on love for one’s neighbor can be extended to an ecological perspective.

[Contents] To investigate the ecological implications of the New Testament’s teaching on neighborly love, the study develops its argument in three stages. First, it analyzes the occurrences of “neighbor” in the Greek New Testament and organizes the concept. Second, it examines the expansion of neighborly love, which encompasses all others, with a particular focus on γείτων in the New Testament and דָּוָר in the Old Testament, to consider how the concept extends to include the earth. Third, the study interprets Genesis 2:15, where humanity is instructed to “till and keep” the land, providing a biblical basis for extending neighborly love to the ecosystem.

[Conclus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concept of “neighbor” in the New Testament extends beyond proximity to include all entities in need, including the earth. The terms γείτων, derived from γῆ(earth), and דָּוָר meaning “dweller,” imply that the earth itself can be regarded as a neighbor. Through the Hebrew verbs עָבַד (“to till”) and שָׁמַר (“to keep”) in Genesis 2:15, the study highlights humanity’s responsibility toward the land and all creatures, underscoring the biblical foundation for expanding neighborly love to the ecological domain.

[Keywords] περίοικος, πλησίον, γείτων, Love for One’s Neighbor, Ecological Perspective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Research Fund of 2024.

* **Corresponding author** Hanseok Seo (Associate Professor, Catholic Colleg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mail : shsjohn@daum.ne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신약성경의 “이웃”(περίοικος, πλησίον, γείτων)의 용례와 생태학적 의미로 확장된 이웃사랑의 가르침

서한석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학부대학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희랍어 신약성경에서 제시하는 “이웃”(περίοικος, πλησίον, γείτων)의 용례를 살펴보고, 생태학적 의미로 확장된 이웃사랑의 가르침을 고찰한다.

[연구 내용] 신약성경에서 가르치는 생태학적 의미로 확장된 이웃사랑을 연구하기 위해서, 본고는 다음의 3단계의 논거를 전개 시킨다. 첫째, “이웃”에 대한 희랍어 신약성경의 용례를 파악한 후 그 개념을 정리한다. 둘째, 타자 중심의 모든 대상에게로 확장되는 이웃사랑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특별히 신약성경의 γείτων과 구약성경의 יָקָן을 중심으로 ‘땅’에까지 확장되는 이웃의 개념을 고찰한다. 셋째, 이웃사랑의 대상인 ‘땅’과 관련하여 창세기의 “그곳(땅)을 일구고 돌보도록(Gn 2:15)”을 해설하며 생태계로 확장된 이웃사랑에 대한 가르침의 성경적 근거를 제시한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신약성경의 용례를 통해 종합적으로 제시된 이웃이란 단순히 내 옆에 사는 사람에서부터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모든 대상에게도 확장된다. 이웃은 이미 생활 속에서 능동적 만남의 한 요소이다. 희랍어 γῆ(땅)로부터 유래한 γείτων과 יָקָן, 이 두 용어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라는 뜻을 지니는데, 인간이 거주하는 땅도 이웃의 개념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의 “그곳(땅)을 일구고 돌보도록(Gn 2:15)”에서 히브리어 동사 עָבַד와 נָמַשׁ의 의미를 통해, 하느님이 인간에게 준 땅에 대한 의무와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가르친다. 자연이 황폐해지고 메마르며 열매를 내지 못하면 인간의 사회 질서도 무너진다. 자연과 이웃은 한 공동체이며 한 운명이다.

[주제어] περίοικος, πλησίον, γείτων, 이웃사랑, 생태학적 의미

I. 서론

본 연구는 신약성경(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05)의 희랍어 “이웃”의 용례를 살펴보고 이웃사랑의 확장된 의미를 고찰하면서 특별히 그 생태학적 가르침에 집중한다. 첫 번째 주제는 희랍어 신약성경(Nestle-Aland 28th ed., 2012)에서 “이웃”으로 제시되는 세 개의 용어, 곧 *περίουκος*와 *πλησίον* 그리고 *γείτων*의 용례를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웃”의 개념을 정리할 것이다. 또한 이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그렇다면 내가 구체적으로 누구의 이웃이 되어,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가?’라는 타자 중심적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고자,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을 종합하는 데에 사용된 용어 *πλησίον*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πλησίον*의 용례를 활용하여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모든 이에게로 확장되는 이웃사랑 개념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생태학적으로 확장되는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먼저 본고는 신약성경의 *γείτων*과 구약성경의 *קָרֵב*에 집중할 것이다. 칠십인역(LXX: Auctoritate Academiae Scientiarum Gottingensis eds., 1943~)¹⁾에서 대부분 *γείτω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구약성경(BHS: Elliger, K. & Rudolph, W. eds., 1997)의 용어는 *קָרֵב*인데, 이 두 단어는 거주하고 있는 곳에 사는 이웃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더 나아가 거주하는 ‘땅’도 이웃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이웃의 개념이 자연으로 확장되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성경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본고는 인간이 땅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창세기의 “그곳(땅)을 일구고 돌보도록(*עָמַד וְשָׁמַר*)(Gn 2:15)”의 해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히브리어 동사 *עָמַד*와 *שָׁמַר*의 의미를 고찰하면서 하느님이 인간에게 준 땅에 대한 의무를 성경 해석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태계까지 인간의 이웃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밝힐 것이다.

II. 신약성경의 이웃

희랍어 신약성경에서 “이웃”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는 *περίουκος*와 *πλησίον*, *γείτων* 3개이며, 총 22회 나온다(Bauer et al., 2000: 191.802.830; Thayer, 2023: 112.504.518-519)²⁾ 특별히 루카 복음에서는 이러한 3개의 의미를 담은 ‘이웃’이라는 개념이 모두 등장하며 그 횟수도

1) 이하 본문에서 언급되는 괴팅엔판 칠십인역은 단순히 “LXX”라 표기하고, 랄프판 칠십인역은 “랄프판 LXX”이라고 표기한다.

2) *περίουκος*는 총 1회 언급(Lk 1:58)되고, *πλησίον*은 총 17회 언급(Mt 5:43; Mt 19:19; Mt 22:39; Mk 12:31; Mk 12:33; Lk 10:27; Lk 10:29; Lk 10:36; Jn 4:5; Ac 7:27; Rm 13:9; Rm 13:10; Rm 15:2; Ga 5:14; Ep 4:25 그리고 Jm 2:8; Jm 4:12)되며, *γείτων*은 총 4회 언급(Lk 14:12; Lk 15:6; Lk 15:9; Jn 9:8) 된다.

총 7회나 된다.³⁾ 따라서 이 장은 루카 복음에 집중하면서도 신약성경 전반에 등장하는 이웃의 의미를 희랍어 용어와 문맥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1. περίοικος

신약성경에서 “이웃”이라는 뜻으로 περίοικος는 περίοικοι의 명사 복수 형태로 단 한 번 등장한다. 루카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의 출생 이야기 안에 위치하는 이웃(περίοικοι)과 친척들은 새로 태어난 아기에 대해 기뻐하고 할례식에 함께 참여하여 축하하며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 준다(Lk 1:584). 이들은 단순히 집 주위에 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친척 관계이기도 하고 또한 기쁨의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사이이다. 희랍어 전치사 “근처에”, “~의 둘레에”, “주위에”, “가까이”를 의미하는 περί와 “주거”, “집” 등을 뜻하는 οἶκος의 합성어인 단수 형태 περίοικος는 그 자체적으로는 “주위에 사는”, “이웃에 사는”이라는 뜻이고, 사람의 거주나 지반, 지면 등의 지리적 의미도 함축한다(Thayer, 2023: 504; Bauer et al., 2000: 802; Maunce, 2011: paragraph 11690).

탈프관 LXX(Rahlfs-Hanhart, 2006)에서 περίοικος는 5회 등장하는데, 대부분 이웃이라는 직접적 의미보다는 장소와 관련된 뜻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창세기 19장 25절의 “온 들판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אֶת כָּל הָעָר**은 LXX에서 희랍어 **πάσαν τὴν περίοικον**으로 번역되고,⁵⁾ 창세기 19장 29절 “그 들판”의 히브리어 **הָעָר**은 LXX에서 **τῆς περιόικου**로 번역된다.⁶⁾ ‘주위에 사는’, ‘이웃에 사는’ 등 일차적으로 장소를 지칭하는 이 용어가(Zodhiates, 1993: n.1069) 루카 복음 1장 58절에서 복수 형태로 쓰여서 “이웃”이 된다는 점은 “이웃”이 장소적 의미로도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구약성경 신명기 1장 7절⁷⁾에서 사용된 용어 **שְׁכֵנֵי**와 이 구절에 해당하는 LXX 구약성경의 **τοὺς περιόίκους**의 번역이 사전에 따라 장소적 의미로도 제안되고 사람의 의미로도 제안된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한편에서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는 신명기 1장 7절의 히브리어 **שְׁכֵנֵי**를 “이웃 사람들”의 뜻이라고 제시하고(Koehler, & Baumgartner, 2001: 1500),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도 역시

3) περίοικος는 총 1회(Lk 1:58), πλησίον은 총 3회(Lk 10:27; Lk 10:29; Lk 10:36), γείτων은 총 3회 언급(Lk 14:12; Lk 15:6; Lk 15:9)된다.

4) “이웃(οἱ περίοικοι)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5) “그리하여 그 성읍들과 온 들판(πάσαν τὴν περίοικον)과 그 성읍의 모든 주민, 그리고 땅 위에 자란 것들을 모두 멸망시키셨다.”

6) “하느님께서 그 들판(τῆς περιόικου)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

7) “[...] 아모리족의 산악 지방, 그리고 그 부근의 모든 지역(히브리어는 **שְׁכֵנֵי**, 희랍어는 πάντας τοὺς περιόίκους), 곧 아라바, [...]”

이 구절에 해당하는 *LXX*의 τοὺς περιούκους를 “이웃들”이라고 제시한다(Lust et al., 2015: 485). 다른 한편에서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는 해당 히브리어를 “이웃하는 지역들”이라고 제안하고(Clines, 2011: 360),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사전도 해당 히브리어를 “이웃 성읍”, “이웃 나라”의 장소적 의미로 제안한다(Gesenius, Lee trans., 2011: 830).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경(2005)과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2005)은 해당 부분을 각각 “그 부근의 (모든) 지역”과 “그 근방 (곳곳)”의 장소적 의미로 번역한다. περιούκος는 이처럼 ‘이웃 사람’의 의미도 함축하고 ‘이웃에 관계된 장소’도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2. πλησίον 그리고 루카 복음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σπλαγχνίζομαι 실천

πλησίον은 “가까운”이라는 뜻의 πέλας에서 파생되었는데, “이웃”이라는 뜻으로 신약성경에는 총 17회가 나온다(Maunce, 2011: paragraph 11982). 부차적으로 1번은 이웃이라는 명사 의미 보다는 “가까이”를 뜻하는 부사로 요한 복음 4장 5절에 나온다(Bauer et al., 2000: 830). 종합적으로 보면 πλησίον은 가까이, 이웃, 가까이 있는 사람, 동료(Ac 7:27⁸⁾ 참조)라는 의미를 가진다(Bauer et al., 2000: 830). *LXX*에서 구약성경의 𐤒𐤔는 주로 πλησίον으로 번역되는데,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에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Lv 19:18)”는 문장에서 “이웃”은 𐤒𐤔이며, 신약성경에서 사랑의 이중 계명에 관계하여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경우⁹⁾ 모두 πλησίον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구약성경의 𐤒𐤔가 가진 이웃의 개념이 대표적으로 신약성경의 πλησίον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Kittel & Friedrich, 1964: 315). 구약성경의 𐤒𐤔의 용례는¹⁰⁾ 레위기 19장 18절의 “이웃”이 형제, 동족 등 혈연공동체의 구성원과 함께 쓰이면서도 이방인을 포함한 이웃이라고 말한다. 터너(David L. Turner)에 의하면, 구약성경의 많은 본문은 이스라엘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존중을 말하고 있다(예를 들어서 Lv 19:33-34; Ex 22:20; Ex

8) “그러자 동료에게(τὸν πλησίον) 해를 입히던 자가 모세를 때밀며 대꾸하였습니다. [...]”

9) Mt 5:43; Mt 19:19; Mt 22:39; Mk 12:31; Mk 12:33; Lk 10:27; Rm 13:9; Ga 5:14; Jm 2:8

10) 구약성경에서 주로 “친족”, “동족”, “동포”, “친구”, “이웃”, “애인” 등의 의미로(1S 30:26; Jr 22:13; Lv 19:13; Lv 19:16; Lv 19:18 등) 187회 이상 등장하는 𐤒𐤔(레아)는 “소란”, “소동” 등의 뜻(Ex 32:17 등)과 “의도”와 “의지”, “지향” 등의 뜻(Ps 139:2 등)도 포함한다(Gesenius, Lee trans., 2011: 766-767). “누구와 친교를 나누다”, “교제하다”의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동사 𐤒𐤔(라아)에서 유래된(Botterweck et al., 2006: 525; Kittel & Friedrich, 1964: 315) 𐤒𐤔는 또한 “사랑하는 자”, “정부”라는 뜻도 내포하며(Ho 3:1 등)(Brown et al., 2015: 945-946; Gesenius, Lee trans., 2011: 767-768; Koehler & Baumgartner, 2001: 1253-1255), 친밀한 이웃뿐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의 뜻(2S 12:11 등)도 지니는데, 이럴 경우는 모르는 사이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기도 한다(Koehler & Baumgartner, 2001: 1254; Brown et al., 2015: 945-946; Gesenius, Lee trans., 2011: 639). 따라서 𐤒𐤔는 가장 가까운 형제나 애인, 친족, 친구부터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이나 타인으로 그냥 옆에 있는 사람까지 매우 광범위한 용례를 보인다.

23:9; Dt 1:16; Dt 10:18-19; Dt 27:19; Ps 146:9; Jr 7:5-6; Jr 22:3; Ezk 47:22-23; Zc 7:9-10; Mt 3:5)(Turner, Bae tran., 2019: 240-241).

그러나 1세기 팔레스타인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율법 학자의 하느님에 대한 집단적인 충성 의식은 이웃의 범위에 대하여 확고한 선을 긋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곧 정치적인 독립과 자율성이 전적으로 사라진 상황을 경험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아무 죄도 없는 이웃들로 비추어진 것이 아니라 대체로 외세의 지배 속에서 공존하는 가증스러운 존재들로 여겨졌다.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 외국인들, 일 년 안에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는 거류민은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Bock, Shin trans., 2017: 132; Green, Kang trans., 2020: 555; Shillington, Wang trans., 2013: 89).

이러한 배경에서 루카 복음의 율법 교사의 질문인 가장 큰 계명과 예수의 답변인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Lk 10:25-37)에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πλησίον은 신약성경이 제시하는 이웃의 개념을 잘 드러낸다. 여기서 πλησίον은 루카 복음 10장 27절에서 사랑의 이중 계명에 관계하여 한 번 나오고, 그 뒤로는 율법 학자가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πλησίον)입니까?(Lk 10:29)”라고 질문하는 데에서 한 번 더 나온다. 율법 학자가 의도한 이웃은 혈연과 계약의 공동체 구성원이 라는 개념이다. 그런데 예수는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Lk 10:36)”하고 반문한다. 여기서 예수가 말한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당하였으며 부정한 사람이었다. 루카 복음 10장 36절에서 예수가 말한 이웃은 단순히 사마리아인으로 규정되 기보다는 지역, 문화, 종교, 혈족, 편견, 혐오를 뛰어넘는 이웃이다. 내 중심에서 이미 정형화된 내 혈족과 내 주변부 그리고 율법이라는 나의 이해관계에 따른 문자적 개념의 이웃이 아니라, 타자 중심적 질문인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의 확장적 대상이 되는 것이다(Nolland, Kim trans., 2005: 286-287).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 쓰러져있던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가없고 공감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공감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나의 것으로 여겨 기꺼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이다(Nolland, Kim trans., 2005: 310). 여기서 ‘가없는 마음이 들었다’의 의미로 사용된 희랍어 ἐσπλαγγνίσθη는 원형 σπλαγγνίζομαι의 제1과거 수동태형이다. 같은 어근의 희랍어 명사 단어 σπλάγγνον은 내장(Ac 1:18¹¹), 마음속(2Co 6:12¹²), 자비, 동정(Lk 1:78¹³; Ph 2:1¹⁴; Col 3:12¹⁵)으로 번역된

11) “[...],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내장이(τὰ σπλάγγνα) 모조리 쏟아졌습니다.

12) “우리가 여러분을 웅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τοῖς σπλάγγνοις)이 웅색한 것입니다.”

13) “우리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διὰ σπλάγγνα ἐλέους) [...]”

14)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σπλάγγνα)을 나눈다면,”

다(Bauer et al., 2000: 938). *σπλαγχνίζομαι*는 공관복음서에 총 12번 등장하는데,¹⁶⁾ 순우리말로 ‘애통하다’, ‘애타다’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마커스 보그(Marcus Borg)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용어는 바로 컴패션(compassion)이라고 설명한다. 예수가 가졌던 컴패션은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요약하고 있는 용어라는 것이다 (Borg, 1994: 46-61). 영어로 ‘compassion’은 라틴어로 접두사 ‘com’(‘함께’라는 의미)과 ‘passio’(‘수난, 걱정, 고뇌’의 뜻)의 의미를 지닌 *compassio*에 기원을 둔다. 따라서 이 용어의 뜻은 타자의 입장에 자신의 체험을 대입시켜 공감하고 함께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함께 고뇌하다’, ‘함께 아파하다’이다(Reich, 1989: 84). 필리스 트리블(Phyllis Trible)은 이러한 compassion과 히브리어-아람어적 관련어는 여성의 자궁을 가리키는 *מח*의 복수형 *מחמח*이라고 제시하면서, 타자와 같은 공감을 체험하는 것(compassion)은 여성의 자궁이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마음, 곧 어머니의 마음을 갖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Phyllis, 1978: 32-34). 키틀(Gerhard Kittel)에 의하면,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마음을 잘 표현하는 희랍어 용어는 명사로 “내장”을 뜻하는 *σπλάγχνον*이고, 동사로도 *σπλαγχνίζομαι*이다(Kittel & Friedrich, 1964: 548-549). 성경의 이 용어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나의 기쁨을 타인의 기쁨으로 전환 시키며 서로 마주보기를 하는 것”,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함께 나의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것”(Kim, 2013: 686-687)이 하느님의 마음이고 이웃을 대하는 마음이라고 가르친다.

사마리아인은 그 자신과 단절되고 원수처럼 지내는 한 유대인을 본 것이 아니라 어머니요 여인의 자궁과 같은 마음으로, 강도를 만나 옷이 벗겨지고 얻어맞아 초주검이 되어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쓰러져있는 한 가엾은 인간을 본 것이다. 그리고 내장이 끊어질 만큼 절실하게 그의 아픔에 동참한다.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다가가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치료한 후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기까지 한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율법의 정신이 예수가 가리키는 이웃과 이웃사랑의 무제한 범위로 확대되는 순간이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구조의 토대인 신자본주의는 체계적으로 빈부의 차, 계급의 차, 세대와 문화적 차이의 격차를 더욱 벌려놓았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에 따른 무제한의 자원개발과 환경 파괴는 인류를 자멸의 상태로 내몰고 있다. 현대는 서로에 대한 공감의 시대를 요청한다. 특별히 생태계 문제를 절감하고 있는 현대 세계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마음으로 피조계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아, 파괴된 자연 상황에 공감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나의 이기적 행동을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 곧 이웃을 대하는 마음이라고 요청한다.

15) “[...]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σπλάγχνον*)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16) Mt 9:36; Mt 14:14; Mt 15:32; Mt 18:27; Mt 20:34; Mk 1:41; Mk 6:34; Mk 8:2; Mk 9:22; Lk 7:13; Lk 10:33; Lk 15:20.

3. γείτων

이웃을 의미하는 γείτων은 신약성경에서 총 4회(Maunce, 2011: paragraph 3247) 언급되며, 본고가 땅과 이웃과의 관계를 밝히려는 데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용어는 땅, 육지, 흙, 지구,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란 의미를 포괄하는 γῆ에서 유래되었다. 테이어(Joseph H. Thayer)에 의하면 γείτων의 원래적 의미는 “~와 동일한 땅에”이다(Thayer, 2023: 112; Liddell & Robert, 1996: paragraph 11354; Bauer et al., 2000: 191.196). 루카 복음은 가난한 이들을 초대하는 장면에서 혹은 되찾은 양의 비유나 되찾은 은전의 비유에서 γείτων으로서 “이웃”을 3회 언급한다(Lk 14:12¹⁷; Lk 15:6¹⁸; Lk 15:9¹⁹). 또한 요한 복음 9장 8절²⁰의 γείτων “이웃”은 태생 소경의 치유를 증언하는 역할을 한다(Bock, Shin trans., 2017: 513). 희랍어 용어 γῆ에서 유래된 γείτων이 이웃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일정한 지역이나 땅에 관계하여 가까이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이웃을 뜻하는 것과 같다(Kochler & Baumgartner, 2001: 1500; Kittel & Friedrich, 1964: 975-976).

루카 복음에서만 3번 등장하는(Lk 14:12; Lk 15:6; Lk 15:9) γείτων은 특별히 모두 잔치에 초대되는 대상으로서 이웃이다. 루카 복음은 예수가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를 하면서 있었던 일을 전한다(Lk 14:1-24). 예수를 초대한 주인은 자신의 친척, 친구, 부유한 이웃들(γείτων)도 초대하였다. 여기서 등장한 부유한 이웃(γείτονας πλουσίους)은 우리말로 그 지역유지(地域有志) 짚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예수는 주인에게 부유한 이웃보다는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라고 가르친다(Lk 14:13). 예수가 말한 이웃은 루카 복음에서 일관되게 언급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예수의 관심이 드러나는 관점과 일맥상통한다(Bock, Shin trans., 2017: 459-462).

루카 복음 15장 1-10절은 세리,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예수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세 가지 비유를 말하는 예수를 전한다. 특별히 6절과 9절은 잃었던 양 그리고 은전을 되찾고 기뻐하는 어떤 사람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함께 기뻐하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웃”은 γείτων이다. 특이한 점은 6절에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남성 명사 복수형인데(τοὺς γείτονας), 반면 9절의 벗과 이웃은 모두 여성 명사 복수형이다(τὰς φίλας καὶ γείτονας). 등불을 켜고 집을 청소하는 여인에 대한

17)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γείτονας πλουσίους)을 부르지 마라.’ [...]”

18)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τοὺς γείτονας)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19)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τὰς φίλας καὶ γείτονας)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하고 말한다.”

20) “이웃 사람들이(οἱ γείτονες),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봐 온 이들이 말하였다. [...]”

묘사는 그녀가 낮은 출입구와 창문이 없는 농부의 작은 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었음을 확인시켜 준다(Marshall, 1994: 1004). 이 잔치는 여자들만의 잔치, 그것도 가난한 여인들만의 잔치인 것이 분명하다. 같은 처지의 여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그녀가 부르면 바로 올 수 있고, 그녀의 처지와 공감할 수 있는 여성 동네 축제(The Female Neighbourhood Celebration)였을 것이다. 잃었던 은전을 찾은 여인의 친구와 이웃이 가난한 여인들이었다는 점은 루카 복음이 지닌 가난한 이웃과 여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Fitzmyer, Lee & Hwang trans., 2015: 1797; Nolland, Kim trans., 2004: 601; Kartzow, 2019: 280).

γείτων으로서 “이웃”은 나와 이해관계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무제한으로 확장된 범위의 이웃이다(Fitzmyer, Lee & Hwang trans., 2015: 1744).

4. 종합

성경은 이웃사랑에 대한 종합적 실천으로 레위기 19장 18절의 명령에 따라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를 제시한다. 이 점에 대해서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Rm 13:8-10).

레위기 19장 18절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에서 “이웃”은 구약성경의 אֱחָד 가 사용되었고, 이에 대한 LXX의 번역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신약성경의 원어는 πλησίον 이다. 신약성경은 총 9회 πλησίον 이 사용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며(Mt 5:43; Mt 19:19; Mt 22:39; Mk 12:31; Mk 12:33; Lk 10:27; Rm 13:9; Ga 5:14; Jm 2:8) 이웃사랑 실천의 구체적이고 확장된 개념을 제시한다(Maunce, 2011: paragraph 11982; Bauer et al., 2000: 830).

그렇다면 나의 이웃을 어떻게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가? 이웃을 대하는 데에 구체적 실천의 가르침은 신약성경의 πλησίον 의 용례를 통해 종합적으로 나타난다. 로우(Johannes P. Louw)에 의하면, “이웃”을 의미하는 세 가지 용어 곧 περίοικοι , πλησίον , γείτων 중에서 πλησίον 이 그 의미 면에서 더 포괄적이기도 하다(Louw, 1989: 131). 마태오 복음 19장 19절과 마르코 복음 12장 31절에 사용된 πλησίον 은 문맥상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고 묻는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주라는 예수의 가르침에서 나온다. 특별히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πλησίον 의 “이웃”은 나를 제외한 모두에게 향하게 한다. ‘이

‘우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이웃의 대상 문제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라는 나의 문제가 된다.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것처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묻고 실행하는 능동적인 실천은 사람과 종교와 지역에 대한 모든 경계를 허문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Lk 10:37)”하고 가르친다. 여기서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질문 자체는 무가치한데, 사랑의 계명이 모두에게로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Green, Kang trans., 2020: 558-559). 따라서 사랑의 대상이 되는 πλησίον은 구약성경의 77 곧 혈연과 계약 공동체 그리고 장애인, 고아, 과부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의 범위 내에 있는 정적인 “이웃”에서 무제한으로 확장되어 나를 제외한 모두가 내가 능동적으로 찾는 “이웃”의 용어가 된다(Nolland, Kim trans., 2004: 301).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웃사랑 실천의 가장 핵심적 확장은 바로 원수에게까지 이르는 사랑이다. 마태오 복음과 루카 복음이 말하는 이웃 πλησίον은 그 대상이 원수, 적대자(ὁ ἐχθρός)까지로 확장된다(Mt 5:44; Lk 6:27). 성경은 더 나아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친다(Lk 6:28; Lk 23:34; Ac 7:60 참조). 이웃사랑의 실천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마음으로 내장까지도 쏘아 낼 수 있을 정도로 타자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σπλαγχνίζομαι 마음을 요청한다.

이처럼 성경은 이웃의 대상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는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물어서는 안 된다(Bock, Shin trans., 2017: 121-132). 이웃의 대상이 장소에까지 확장될 가능성은 περίουκος와 γείτων으로서의 “이웃”에서 드러난다. 신약성경에서 단 한 번, περίουκοι 명사 복수 형태 “이웃”으로 등장하는 περίουκος는 일차적으로는 ‘주위에 사는’, ‘이웃에 사는’ 등의 장소적 의미를 지닌다(Zodhiates, 1993: n.1069). γείτων은 γῆ란 의미로부터 이웃인데, 이는 거주하는 지역이나 땅과 관련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이웃’이다. 예수는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를 하면서 이웃으로 γείτων을 정의 내린다(Lk 14:1-24 참조). 여기서 이웃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 여인들(Lk 15:9)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Lk 14:13) 모두가 나의 능동적 이웃에 포함되어야 한다. γείτων은 단순히 가까운 거리와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웃의 장소적 범위를 넓히며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라는 타인과 타자 중심의 이웃 관계의 설정을 요청한다(Bock, Shin trans., 2017: 121-132).

III. ψ과 γείτων 그리고 생태계로 확장되는 이웃

신약성경의 용례를 통해 종합적으로 제시된 이웃이란 단순히 내 옆에 사는 사람에서부터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모든 대상뿐만 아니라 무제한 타자에게로 확장된다. 이웃은 이미 생활

속에서 자발적이고 능동적 만남의 한 요소이며, 인생 자체는 이웃을 정의하는 데에 있지 않고 이웃이 되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신약성경에서 제시된 이웃의 범위는 땅과 생태계로 확장되는가?

타자 중심의 모든 대상에게로 확장되는 이웃 개념을 염두에 두고 이 장은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제로 다루어질 생태학적으로 확장된 이웃사랑의 가르침을 전개할 것이다. 먼저 신약성경과 LXX에서 사용된 γείτων의 용례와 구약성경의 שכן의 용례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할 것이다. 이 두 용어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라는 뜻을 포함하는데, 거주하는 ‘땅’도 이웃의 개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본고는 확장된 이웃의 대상으로서 ‘땅’과 관련하여 창세기의 “그곳(땅)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לְעֹבְדָהּ וּלְשָׁמְרָהּ)(Gn 2:15)”의 해석을 통해 생태계로 확장된 이웃사랑 가르침의 성경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1. שכן과 γείτων으로 제시된 “땅”인 생태학적 이웃

거주민, 이웃, 이웃 나라 등의 의미인 שכן은 히브리어 구약성경에 20회 이상²¹⁾ 나온다. 가까이 거주하는 자란 의미의 이웃을 뜻하는데, 이는 이웃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먼저 שכן이 이웃으로 번역되는 경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 하권 4장 3절²²⁾은 기름이 떨어진 과부에게 기적을 베푸는 엘리사가 다급하게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사용된 שכן은 먼 곳에 있는 이웃이 아닌 가까이 사는 이웃을 말한다(Gesenius, Lee trans., 2011: 830; Botterweck et al., 2006: 694). שכן(샤켄)은 ‘정착하다’, ‘거주하다’, ‘살다’, ‘머물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동사 שכן(샤칸)에서 유래되었다(Gesenius, Lee trans., 2011: 830). 사전의 일차적 의미로 거주민, 주민, 이웃, 이웃 사람을 지칭하는 שכן(샤켄)은 동시에 어느 지역, 성읍, 땅 등 장소도 함께 의미한다(Kochler & Baumgartner, 2001: 1500). 예를 들어서 신명기 1장 7절²³⁾에서 שכן이 사용된 כָּל־שְׁכֵנֵינוּ는 성경에서 “그 부근의 모든 지역”으로 번역되었는데(Clines, 2011: 360; Gesenius, Lee trans., 2011: 830) 여기서 말하는 שכן “지역”은 아라바 땅, 산악 지방, 평원 지대 등을 의미하며, 하느님이 모세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Dt 1:8²⁴⁾).

21) 예를 들어서 “거주민”, “주민”의 뜻으로 Is 33:24; Ho 10:5. “이웃”, “이웃 사람”의 뜻으로 Ex 12:4; 2K 4:3; Jr 6:21; Jr 12:14; Jr 49:10; Ps 31:12; Ps 44:14; Ps 79:4; Ps 79:12; Ps 80:7; Ps 89:42; Pr 27:10. “이웃 여인”의 뜻으로 Ex 3:22; Rt 4:17. “이웃 성읍”, “이웃 나라”로 Dt 1:7; Jr 49:18; Jr 50:40; Ezk 16:26.

22) “엘리사가 말하였다. ‘밖으로 나가 모든 이웃(כָּל־שְׁכֵנֵי) 사람에게서 그릇을 빌려 오시오. [...]’.

23) “[...] 아모리족의 산악 지방, 그리고 그 부근의 모든 지역(כָּל־שְׁכֵנֵינוּ), 곧 아라바, 산악 지방, 평원 지대, 네겝, 해안 지대로 가거라 [...]”

24) “보아라, 내가 너희 앞에 저 땅을(אֶת־הָאָרֶץ) 내놓았다. 가서 주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

LXX 구약성경의 γείτων은 주로 히브리어 용어 שכן에서 번역된다. 이 용어는 예를 들어서, 탈출기(Ex 12:42⁵)와 열왕기 하권(2K 4:32⁶), 예레미야서(Jr 6:21²⁷; Jr 12:14²⁸; Jr 29:11²⁹) 그리고 시편(Ps 30:12³⁰; Ps 43:14³¹; Ps 78:43²; Ps 78:12³³; Ps 79:7³⁴; Ps 88:42³⁵)에 등장하는데 공통적으로 가까운 이, 이웃, 이웃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약성경의 γείτων은 γῆ(땅)에서 유래되었다. 구약성경에서도 שכן이 포함된 예레미야서 19장 18절³⁶의 שכני는 성경에서 “(그 이웃) 성읍들”의 의미로 번역된 점, 예레미야서 50장 40절³⁷의 שכני도 “(근처) 성읍들을”의 의미로 번역된 점, 특별히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LXX* 번역³⁸에서는 οἶκος(주거, 집, 성읍)가 포함된 πάροις³⁹인 점은 이 용어 안에 자체적으로 땅에 관계된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Bauer et al., 2000: 698-699.756-758.779; Thayer, 2023: 441.476-478.490). 호세아서의 경우 שכן(Ho 10:5⁴⁰)[שכן(샤켄) 사용]은 성경에서 “(사마리아) 주민들”로, *LXX*에서는 οἶκος 곧 거주지와 정착이 포함된 개념 κατοικοῦντες⁴¹)로 번역되었

곱과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את־הארץ) 차지하여라.”

25)“ [...]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τὸν γείτονα τὸν πλησίον αὐτοῦ)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

26) “[...] 밖으로 나가 모든 이웃 사람에게서(παρὰ πάντων τῶν γειτόνων σου) 그릇을 빌려 오시오. [...]” 열왕기 하권 4장 3절의 경우 랄프판 *LXX*에서 인용하였다.

27) “아버지와 아들, 이웃과 친구들이(γείτων καὶ ὁ πλησίον αὐτοῦ) 함께 망하리라.”

28) “ [...] 이는 사악한 모든 이웃 민족들에 관한(περὶ πάντων τῶν γειτόνων τῶν πονηρῶν) 말씀이다. [...]”

29) *LXX* Jr 29:11은 *BHS*에서 Jr 49:10에 해당된다. “그의 후손과 형제들과 이웃들이(γείτονος αὐτοῦ) 몰락하고 자신마저 살아남지 못한다.”

30) “제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에게는(τοῖς γείτοσιν) 놀라움이, [...]”(BHS에서는 31:12에 해당된다).

31) “당신께서 저희를 이웃들에게(τοῖς γείτοσιν) 우쭐거리로, [...]”(BHS는 44:14).

32) “저희는 이웃들에게(τοῖς γείτοσιν) 우쭐거리가 되고 [...]”(BHS는 79:4).

33) “저희 이웃들의 품에다(τοῖς γείτοσιν ἡμῶν) 일곱 배로 갚으소서, [...]”(BHS는 79:12).

34) “당신께서 저희를 이웃들의(τοῖς γείτοσιν) 싸움 거리로 만드시어 [...]”(BHS는 80:7).

35) “[...] 그는 이웃들에게(τοῖς γείτοσιν) 우쭐거리가 되었습니다.” (BHS는 89:42).

36)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שכני) 멸망했을 때처럼 [...]”

37) “하느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근처 성읍들(שכני)과 함께 멸망시킬 때처럼 [...]”

38) *BHS*의 Jr 49:18은 *LXX* Jr 29:19에 해당한다.

39) 장소적 의미를 지니는 전치사 παρά(파라)(“~에게서”, “~에게서부터”)와 “주거”, “집”, “성읍”을 뜻하는 οἶκος로부터 유래된 πάροις는 그 자체적으로 사람의 거처나 지반, 지면 등의 지리적 의미를 함축한다.

40) “벧 아웬의 송아지 때문에 사마리아 주민들(שכן)이 떠난다. [...]”

41) κατοικοῦντες는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의 κατοικέω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 형태로 장소적 의미를 지니는 전치사 κατά(“~에서 아래로”, “~의 안으로”, “~의 속으로”)와 “주거”, “집”, “성읍”을 뜻하는

는데, 따라서 이 שכן도 이미 ‘땅’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Bauer et al., 2000: 511-513.534; Thayer, 2023: 326- 329.341). 희랍어 γείτων에 녹아있는 개념 γή는 사람의 거처, 지면, 지반, 지리적 의미의 땅, 대지를 의미한다(Koehler & Baumgartner, 2001: 1500; Kittel & Friedrich, 1986: 975-976). 이 ‘땅’은 세상의 일부로서의 땅이고 하느님과 관계 속에서의 땅이다. 땅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고(Gn 1:1) 땅은 피조물로서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다(Kittel & Friedrich, 1964: 130-131).

창세기 26장 2절에서는 שכן(샤켄)의 어원인 שכן(샤칸) 동사가 사용된다.

:ד' אל-תרד מצרמה שכן בארץ אשר אמר אליך [...]

[...]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 주는 땅에 자리 잡아라(שכן)(Gn 26:2).

본문의 “자리 잡아라” שכן(쉐콘)은 히브리어 동사 שכן(샤칸)의 명령형이다. 장 루이 스카(Jean Louis Ska)는 이 단어에 대한 해석에서 שכן(샤켄)은 일반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그 땅에 거주한다’는 의미라고 본다. 이러한 שכן(샤켄)의 일반적 의미를 따른다면, 그 땅에 관련된 사람은 그 땅에서 정착하여 천막을 치고 살집과 먹을 소출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땅을 일구고 돌보는 의무가 함께 지워진다(Ska, 2021: 175). 그러나 땅에 정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착이 하느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예를 들어 Jr 49:18⁴²; Jr 50:40⁴³)(Botterweck et al., 2006: 696). 대신 구약성경은 인간과 땅의 불가분한 관계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 훼손이 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Gn 3:17 참조), 예언자들은 인간의 사회적 질서가 무너진 것에 대한 책임이 땅에까지 미친다고 전한다. 호세아서는 불순종의 결과가 땅과 자연에까지 미친다고 증언한다(Ho 4:1-3 그리고 Jr 9:1-10 참조). 이와는 반대로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스라엘의 사회적 질서의 회복으로 이어지며, 그 땅에 내리는 축복은 소출로 이어진다.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위대한 행동들의 중심 주제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땅과 인간이다. 땅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고, 따라서 땅은 인간과 공동 운명체이다(Ps 107:33-42 참조)(Cho, 2010: 114; Brueggemann, Kang trans., 1992: 21-39).

그러나 여전히 현대사회 인간에게 공동 운명체인 땅은 가엾은 마음으로 돌보는 이웃이라기

oikos로부터 유래된 개념이다.

- 42)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שכניהם) 멸망했을 때처럼,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아무도 거기에 살지 않고 그곳에 머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 43) “하느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근처 성읍들(שכניהם)과 함께 멸망시킬 때처럼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고 그곳에 머무는 사람이 없으리라.”

보다는 착취하고 지배하는 대상이다. 현대에 심각한 문제인 환경 파괴는 자유 경제 시대의 문을 연 인간의 탐욕과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로 생겨난 결과이다.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내리셨다(Gn 1:22)”. 자연은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서 인간과 공존하고 관계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주체이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서로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느님의 모상(Imago Dei)으로서 우월성을 지닌 인간의 교만은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여 땅에 대한 억압과 지배, 착취라는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켰다(Kim, 2002: 22-24).

2. ‘이웃’인 ‘땅’과 생태학적 이웃에 대한 확장된 실천 방식

1) 잘못 이해된 성경의 창조 기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린 화이트(Lynn Townsend White)에 의하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창조 기사는 자유 시장경제와 황금만능주의를 지향하는 과학기술이 자연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한 근거를 제공한다(White, Lee trans., 1992: 290). 그중에서도 창세기 1장 28절은 의미심장하다. 여기서 화이트는 “지배하여라”와 “다스려라”라는 단어를 해석하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를 갈라놓았다(Sung, 2007: 2).

[...] פָּרוּ וּרְבוּ וּמְלֵאוּ אֶת-הָאָרֶץ וּכְבַשְׁתָּהּ וְרָדוּ בָּדָת תַּיִם וּבְעוֹף הַשָּׁמַיִם [...]

자식을 많이 낳고(פָּרוּ) 번성하여(וּרְבוּ) 땅을 가득 채우고(וּמְלֵאוּ) (땅을) 지배하여라(וּכְבַשְׁתָּ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 다스려라(וְרָדוּ)(Gn 1:28).

본문의 “지배하여라”(וּכְבַשְׁתָּהּ)라고 번역된 부분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의 원형은 כָּבַשׁ이다. 이 단어는 “복종시키다”, “종속시키다”, “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심지어는 “폭행하다”, “강간하다”라는 뜻도 지닌다(Gesenius, Lee trans., 2011: 338; Brown et al., 2015: 461). 또 다른 단어인 “다스려라”(וְרָדוּ)로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 동사 원형은 רָדָה이다. 이 단어는 “정복하다”, “통치하다”는 뜻을 가지는데, 주인이 고용된 종을 다스리거나(Lv 25:43; Lv 25:46; Lv 25:53 참조), 신하를 다스리는 왕(1K 5:4; Ps 72:8), 가축 떼를 돌보는 목자와 관계되어 나타난다(Gesenius, Lee trans., 2011: 748; Brown et al., 2015: 921-922). 해밀턴(Victor P. Hamilton)에 의하면, 창세기 1장에서 제시되는 כָּבַשׁ와 רָדָה는 ‘억압하다, 파괴하다, 없애다’라는 의미보다는 ‘돌보다, 가꾸다, 보호하다’의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창조 기사를 다루는 구약성경에서 이 구절은 자연스럽게 창세기 2장 5절44)과 2장 15절45)의 ‘땅을 경작하고 보호하고 지키다’와 비슷

44) “주 하느님께서서는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한 의미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용어들은 또한 고대의 임금들이 ‘그 땅을 정복하여 그 땅과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도 포함한다. 솔로몬의 평화로운 통치에서처럼(1K 5:4 참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임금이 정복하고 통치하는 것은 백성에게 폭력과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느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지키고 공정을 펼치며 인정을 베푸는 통치이다. 시편의 다스리는 왕도 백성의 가련한 이들의 권리를 보살피고, 불쌍한 이들에게 도움을 베풀며, 폭행하는 자를 처벌하는 왕으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왕이다(Ps 72)(Hamilton, Lim trans., 2016: 146; Wenham, Park trans., 2006: 130).

몰트만(Jürgen Moltmann)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지배하여라. [...] 다스려라(Gn 1:28).”를 인간에게 부여된 특별한 신적 사명 곧 메시아적 사명과 연결하여 해석한다. 창조주인 하느님은 인간에게 맹목적인 세상의 지배자 역할을 요청하지 않고, 땅과 피조계 전체를 관리하고 보존하며 유지하도록 하는 사명을 부여하였다. 몰트만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사야서 11장 1-9절⁴⁵⁾은 메시아와 평화의 왕국 사상을 지배에 대한 특별한 규정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이 규정은 하느님의 형상인 인간이 땅과 식물, 동물 그리고 창조물 전체와 이루어야 할 평화의 질서를 이루기 위한 규정이다. 이제 인간은 창조자를 대변하는 메시아적 사명에 따라 땅위의 대리자와 관리자로 존재해야 한다(Moltmann, Kim trans., 1985: 277-278, 322-325).

2) ‘이웃’인 ‘땅’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Gn 2:15).”

“땅에 아직 들의 덩불도 하나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돌아나지 않았다. 주 하느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Gn 2:5).”고 시작하는 두 번째 창조 기사는 자연이 인간의 지배와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섬기고 돌보는 대상이라는 근거를 제시한다. 이 구절은 하느님이 아담을 창조한 목적 중 하나가 그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게 하는 것이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하느님의 창조물인 땅을 경작하는 것은 항상 하느님의 의도였으며,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은 땅을 돌보아야 한다. 따라서 창세기 2장 5절은 땅과 자연에 대한 이웃사랑의 실천적 해석이 될 수 있다. 하느님의 의도에 따라 땅은 인간의 관심과 도움 그리고 땅의 상태에 대한 공감과 보살핌으로 가꾸어져야 하기 때문이다(Carpenter & VanGemeran, 1997: 303).

창세기는 “하느님께서 에덴동산에 사람을 데려다 두시고,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Gn 2:15).”고 증언한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거기에 두신 이유는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기 위함이다. “그곳을 일구고 돌보도록”이라는 의미의 **לעבדה ולשמרה**의 두 어구는 BHS에서 유일하게 표

45)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데려다 에덴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46) 몰트만은 9절에 주목한다.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앎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되는데, 모두 ‘~을 위하여’란 뜻이 있는 전치사 לְ와 부정사 연계형이 결합 된 전치사구로 이를 직역하면 “(에덴동산 땅을) 일구기 위하여 그리고 (에덴동산 땅을) 돌보기 위하여”이다 (Koehler & Baumgartner, 2001: 773; Gesenius, Lee trans., 2011: 372-375). 그리고 5절과 15절에서 ‘일구다’의 의미로 해석된 히브리어 동사의 원형은 עָבַד인데, 이 단어는 보통 ‘봉사하다’, ‘헌신하다’, ‘받들어 섬기다’를 의미하며, ‘일하다’, ‘가꾸다’, ‘경작하다’라는 뜻도 지닌다 (Koehler & Baumgartner, 2001: 773-774; Gesenius, Lee trans., 2011: 557-558; Brown, 2015: 712-713). ‘돌보다’의 의미로 해석된 히브리어 동사의 원형은 שָׁמַר이며, 이 단어의 어근이 갖는 기본적 의미는 ‘각별히 관리하다’이다(Hamilton, Lim trans., 2016: 183). 또한 ‘지키다’, ‘보호하다’, ‘보존하다’(Koehler & Baumgartner, 2001: 1581-1584; Gesenius, Lee trans., 2011: 849-850; Brown, 2015: 1036-1037)는 뜻도 지닌다. 이 구절이 증언하듯이 에덴동산의 땅이 가꾸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봉사와 섬김 그리고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밀턴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동산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고, 저절로 존속하지 않는다. 사람은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기’ 위해서 동산에 있게 된다. 우리가 ‘경작하며’라고 번역한 단어는 ‘아바드’로, 보통 ‘섬기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다. 그래서 이 표현은 사람을 종으로 동산에 두었다는 것으로 들린다. 인간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동산에 있게 된다. 두 번째 단어인 ‘샤마르’는 약간 다른 어감을 갖고 있다. 이 동사의 어근이 갖는 기본적인 의미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각별히 관리하다’이고, 필요에 따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된다(Hamilton, Lim trans., 2016: 183-184).

루카 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고통을 겪으며 쓰러져 있던 유대인을 보살피주었던 것은 그를 보호하고 양육하려는 마음, 그를 가없이 여기고 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 곧 어머니요 여인의 자궁과 같은 마음으로 먼저 그에게 다가섰기 때문이다. 창세기에서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땅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Gn 1:11).

하느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אָדָם은 흙, 땅(אֲדָמָה)에서 유래한다(Gn 2: 7⁴⁷). 아담이 “땅의 먼지(흙)로(אֲדָמָה מִן הָאֲדָמָה)(Gn 2,7)”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 자체가 어머니의

47) “그때에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אֲדָמָה מִן הָאֲדָמָה)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땅으로부터 나왔으며, 이는 인간이 땅과 주위 환경뿐만 아니라 자연과도 연결되었다는 의미이다. “땅은 사람의 요람이며, 그의 거처이고, 그의 무덤이다”(Wenham, Park trans., 2006: 171). 땅과 자연은 인간의 단순한 객체요 타자가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를 실현하는 사랑의 실천적 대상이 된다. 만일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이 연결은 끊어진다. 곧 생태는 전체적인 상호 연결을 의미하는데 인간이 자행하는 생태 파괴는 이것의 끊어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Seog, 2004: 88-96). 인간은 자연을 돌보기 위해서, 일구기 위해서 자연이 준 그 땅에 거주하며,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따라 소출을 낸다. 자연이 황폐해지고 매마르며 열매를 내지 못하면 인간의 사회 질서도 무너진다. 자연과 이웃은 한 공동체이며 한 운명이다(Cho, 2010: 110). 이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창조물들을 위하여 각각 이름을 지어줄 권리와 책임을 부여한 내용(Gn 2:19-20⁴⁸)에서도 잘 드러난다. 구약과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의미는 단순한 식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사물의 이름은 의미를 지녔고 이름을 붙여준 인간은 그만큼 권위를 지닌다는 뜻이다. 이 권위는 ‘다스리고 보호하며 지키는 것’이 올바르게 사용되는 권위인 것이다(Song, 2018: 33-68; Hamilton, Lim trans., 2016: 148).

따라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개념은 창세기 2장의 “그곳을 돌보고 일구게 하셨다”와 함께 모든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통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이는 하느님의 대리자(Imago Dei)로서 인간의 피조물과 세계를 돌보고 보살피는 권리와 의무인 것이다(Von Rad, 1968: 145-149; Pope Francis, 2015: 54-58).

III. 결론

생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지구이고 살아있는 모든 대상이며, 모든 인류이다. “공동의 집”인 우리 지구는 글로벌한 이웃의 시대를 살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찰된 이웃의 의미를 가르친다. 지역과 인종과 문화와 종교 그리고 자연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뛰어넘는 모든 생태계를 향한 관심과 실천이 현대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실제로 인간은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느님, 타인, 모든 피조물과 친교를 이루어 살면서 관계를 맺을수록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며 거룩해진다.”(Pope Francis, 2015: 171).

세상의 모든 이웃이 서로의 지체이며 공동체이므로, 공동의 성장을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한다. 현대 인간은 세상에 작고도 소중한 것이 많음을 인식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신에게

48)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 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서 벗어나, 희생과 배려로 단순함과 가난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현대 인간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 곧 무너졌던 생태계에 대한 가엾은 마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이해와 공감 안에서 사랑을 이룰 때, 무너졌던 자연 질서는 다시 세워지고 모든 피조계는 인간과 함께 기쁨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References

[Primary Sources]

Accordance Bible Software Version 14 (OakTree Software, 2024).

BHS: Elliger, K., & Rudolph, W. (eds.). (1997).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5. Auf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LXX: Auctoritate Academiae Scientiarum Gottingensis (eds.). (1943~). *Septuaginta Vetus Testamentum Graecu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LXX: Rahlfs-Hanhart (eds.). (2006). *Septuaginta: Id est Vetus Testamentum graee iuxta LXX interpretes*.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Nestle-Aland 28th (eds.). (2012). *Novum Testamentum Graece* with Dictionary.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5). 성경.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Translated in English)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05). *The Holy Bible*. Seoul: Catholic Conference of Korea.

[Secondary Sources]

Bauer, W., Aland, K., Aland, Barbara., & Reichmann, V. (2000).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ock, D. L. *Luke 9:51-24:53 by Baker Academic*. 신지철 번역 (1996). 누가복음 2. 서울: 부흥과 개혁사.

Borg, M. J. (1994). *Meeting Jesus Again for the First Time*. New York: Harper.

Botterweck, G. J., & Ringgren, H. (eds.). (2006).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11. Michigan: Eerdmans.

- Brown, F., Driver, S., & Briggs, C. (2015). *The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 Brueggemann, W.. *The Land*. 강성열 번역 (1992). 성서로 본 땅. 서울: 나눔사.
- Carpenter, E., & VanGemeren, W. A. (eds.). (1997).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3. Grand Rapids: Zondervan.
- Cho, H. C. (2010). In Search of Christian Ecological Spirituality: An Ecological Appropriation of the Bible. *Theological Thought*, 149(06), 93-125.
- Clines, David J. A. (ed.). (2011).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8.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 Fitzmyer, J. A.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vol.2. 이두희, 황의무 번역 (2015). 앵커 바이블: 누가복음 2.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Gesenius, W.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by Gesenius. Wilhelm*. 이정희 번역 (2007).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사전. 서울: 생명의 말씀사.
- Green, J. *NICNT: The Gospel of Luke*. 강대훈 번역 (2020). NICNT: 누가복음. 서울: 부흥과 개혁사.
- Hamilton, V. P. *NICOT: Genesis 1-17*. 임요한 번역 (2016). NICOT: 창세기 1. 서울: 부흥과 개혁사.
- Kartzow, M. B. (2019). The Ambiguous Neighbour; Female Neighbourhood Networks and the Parable of the Lost Coin, *Neotestamentica*, V.53(2)(01), 271-289.
- Kim, S. H. (2013). The Power of Jesus' Compassion - Through 'σπλαγχνίζομαι' in Mark. *Korean New Testament Studies*, 20(09), 685-720.
- Kittel, G., & Friedrich, G. (eds.). (1964).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 Koehler, L., & Baumgartner, W. (2001),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1.2., Leiden: Brill.
- Liddell, H. G., & Robert S. (eds.). (1996). *An Intermediate Greek-English Lexic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ouw, J. P., & Eugene A. N. (eds.). (1989).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New York: Bible Societies.
- Lust, J., Eynikel, E., & Hauspie K. (eds.). (2015).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 Marshall, I. H. (1994). *Luke: Historian & Theologian*,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 Moltmann, J. *Gott in der Schöpfung: Ökologische Schöpfungslehre*. 김균진 번역 (2002). 창조 안

- 에 계신 하느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 Mounce, W. D. (2011). *Mounce Concise Greek-English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Altamonte Springs: Oak Tree Software.
- Nolland, J. *WBC: Luke*. 김경진 번역 (2005). WBC: 누가복음. 서울: 솔로몬.
- Phyllis, T. (1978).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Pope Francis. *Praise be to You, My Lord*. CBCK 번역 (2015). 찬미받으소서.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 Reich, W. Th. (1989). Speaking of Suffering: A Moral Account of Compassion. *Sounding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72(04), 83-108.
- Shillington, V. G.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Luke-Acts*. 왕인성 번역(2013). 누가복음·사도 행전 개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Ska, J. L. *Una goccia d'inchiostro*. 박문수 번역 (2021). 잉크 한 방울: 성경이 제시하는 전망들에 대한 고찰. 서울: 성서와 함께.
- Song, Y. M. (2018). Theological Reflection on Christian Environmental Stewardship. *The Catholic Thought*, 56(06), 33-68.
- Sung, Y. G. (2007). Reappraisal of the Historical Roots of Ecologic Crisis. *Journal of Western Medieval History*, 19(04), 1-38.
- Thayer, J. H. (2023). *Thayer's Greek Lexicon: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Coded with Strong's Concordance Numbers*.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 Turner, D. L. *BECNT: Matthew by Baker Academic*. 배용덕 번역 (2019). BECNT: 마태복음. 서울: 부흥과 개혁사.
- Von Rad, G. (1968). *Old Testament Theology: the Theology of Israel's Historical* vol.1. Defunct: Oliver and Boyd.
- Wenham, G. J., *WBC: Genesis 1-15*. 박영호 번역 (2006). WBC: 창세기 1-15. 서울: 솔로몬.
- White, L. T.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이유선 번역 (1992).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기원. 서울: 범양사.
- Zodhiates, S. (ed.). (1993). *The Complete Word Study Dictionary: New Testament*. Chattanooga: AMG Publishers.
- 김춘호 (2002). 환경을 보존하는 그리스도인. 서울: 가톨릭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Kim, Ch. H. (2002). *Christians Preserving the Environment*. Seoul: Catholic Book.
- 석창훈 (2004). 생태영성을 지향하는 환경 신학의 이해. 대구: 대건인쇄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Seog, Ch. H. (2004). *Understanding Environmental Theology*. Daegu: Daegeon Printing Publishing Company.